

■ 불교계 10대 뉴스

2010년 불교계 어떤 일이?

2010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법정 스님 입적과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파동 등 불교계에서는 그 어느해 보다 많은 사회적 이슈가 쏟아져 나오며 세간에 오르내린 한 해였다. 정부의 종교편향과 개신교계의 불교편향을 비롯한 사회 곳곳의 편향된 종교의식은 여전히 종교화합과 평화를 바라는 국민과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경기불황 속에 수행과 명상, 차문화,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 불교적 삶에 관심을 가진 사회인들이 늘어 불교저변이 확대됐다. 또 군포교 활성화의 계기가 될 논산육군훈련소 법당 착공, 조계종·태고종간 신촌 봉원사 문제 타결 등은 2011년에도 불교중흥의 희망이 계속될 것을 보여줬다. 한해동안 눈길을 끌었던 뉴스와 인물을 모았다. <편집자주>

자승 스님 전적 방북, 성과는 천안함 사태로 묻혀

연초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1월 30일 진행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전적 방북은 국면 해소 및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법정 스님 입적... 무소유 신드롬

법정 스님이 3월 11일 오후 1시 51분 세수 79세, 법랍 56세로 송광사 서울 분원 길상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반겨롭고, 부질없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만 끼치는 일체의 장례의식을 행하지 말고, 관과 수의를 따로 마련하지도 말라"는 법정 스님의 유언은 무소유의 참뜻으로 남았다.

봉은사 사태, 결국 명진 스님 퇴진

정치권 외압 의혹 문제까지 터져 나온 봉은사 직영사찰 문제는 결국 화쟁위원회 조정안이 수용되고, 진화 스님이 새 주지로 임명되면서 마무리 됐다.

불교계, 국민들에게 4대강 반대 화두 던져

2010년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5월 31일 경북 군위 지보사의 문수 스님 소신공양은 불교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사찰 땅 밟기 파문... 종교편향 갈수록 심각

올해 불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의 봉은사·동화사 땅 밟기 동영상, 울산KTX역 통도사 병기 취소 등 잇따

경인년 결산 10대 뉴스



스님이 만든 생식 곡류 50%를 받아시킨 호소 발아생식

- 1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 2 유기농으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 3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 4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보신 깊은 불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070-7629-5920

*1일 1회 15(40g)×100,000원 (60회 2개월분)

른 불교 편향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특히 정부의 종교 편향적 태도는 그동안 암암선으로 평가받았던 불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비종교인들에게도 종교 편향 문제가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육군 훈련소 신규법당 착공... 십시일반 50여억 원 모여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조계종 속원사업이었던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다.

신촌 봉원사 타결... 순천 선암사 문제 급물살

서울 신촌 봉원사를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의 50여 년 묵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조계종 교육개혁 시동

조계종이 1994년 승가교육체제 정립 이후 시행돼 온 승가교육에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조계종 선원청규 발간

한국불교 수행자의 지침서가 될 <선원청규(禪院淸規)>가 발간됐다. 전국선원수좌회에서 펴낸 <선원청규(禪院淸規)>는 고청규(古淸規)에 의지해 온 한국불교가 시대와 토양에 맞는 '우리의 청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불교계가 주축이 돼 '조선왕실의례' 반환

불교계가 주축이 돼 민족의 문화 유산을 되찾아왔다. 한국과 일본정부는 11월 8일 <조선왕실의례>를 포함한 우리 문화재 1025점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1. 지구촌 이웃 묵묵히 돕다, 월주 스님(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그동안 국제구호NGO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케냐 등 저개발국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앞장서 왔다. 연초인 1월 11일 생명의 우물

1000개를 완공한 지구촌공생회는 2012년까지 캄보디아에 우물 1000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캄보디아 따계오 주의 프로빠양 프라우·정락 2곳에 초등학교도 설립한다. 함께일하는재단과 위안부 피해시설 나눔의집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월주 스님은 "한 사람의 힘이 지구촌 곳곳의 굶주림과 같은 고통을 해소할 수는 없

지만 그 마음이 전파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다. 올해 월주 스님은 구호활동 외에도 항일운동가 민세 안재홍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1회 민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세상 심사위원회는 월주 스님이 80년대 말부터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수상 사유로 꼽았다.

2. 봉은사 사태 원만 수습, 도법 스님(화쟁위원회 위원장)



1990년 결사체인 선우도량을 만들어 정교운동을 이끌었으며, 1994년 조계종 개혁 불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1998년 종단 분규 당시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사태를 마무리하고 실상사로 돌아갔다. 그 이후 귀농학교, 대안학교, 환경운동 등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운동을 펼쳐 온 도법 스님이 봉은사 사태에 중재자로 나섰다. 총무원과 봉은사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외압설이

부각되며 불교계 내용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사태 수습을 위한 적임자로 도법 스님은 종도들의 신뢰를 받았다. 사태 수습을 위해 출범한 화쟁위원회 활동은 태생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불교 전통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과를 낳았다.

3. 육군훈련소 법당 건립, 자광 스님(조계종 군종교구 교구장)



2009년 7월 제2대 군종교구장으로 취임한 자광 스님에게 2010년은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이란 대사를 위해 매진한 한 해였다.

1970년 군 포교를 시작해 군승 중위로 임관한 이래로 육군본부 군종감시 제도장과 3군 군종참모를 역임했다. 자광 스님은 군포교 현장의 오랜 경험으로 군종교구장으로의 최적임자로 평가 받아왔다. 자광 스님의 불교에 대한 지론은

'명령구리가 돼야 한다' 다. 낮은 자세로 보살 모시기를 부처님 모시듯 하는 자광 스님에게 불자들의 마음이 모인 것은 당연하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사가 착공되기에는 불교계 안팎의 많은 성원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자광 스님의 활약이 있었다.

4. 조선 왕실 의례 반환, 혜문 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위원회 사무총장)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은 조선왕실의례 반환의 일등공신이다. 혜문 스님은 2006년

조선왕실의례환수위원회를 구성해 의례 반환운동을 주도해왔다. 혜문 스님은 일본 도고대에 소장돼 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명성황후 시해에 쓰인 칼인 히젠도(肥前刀), 고종의 투구와 갑옷 등 드러나 있지 않던 우리 문화재를 찾아냈다.

스님은 또 '승'로 잘못 돼 있는 슈베르트 가곡 '승'의 교과서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혜문 스님은 지난 8월 국립과학사연구소를 상대로 낸 '여성 생식기 표본 보관 금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다.

5. '죽문즉설' 호쾌한 화법 여전, 정토회 스님(정토회 이사장)



정토회 이사장 정토회 스님의 전법활동은 올해도 거침없이 진행됐다. 대북지원사업, 수행, 출판 등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오랫동안 인 터넷을 통해 회자되어 결혼 전 반드 시 읽어야 할 대표적인 글로 화제가 된 <스님의 주례사>는 9월 출간되

자마자 베스트셀러 20위로 오르고 1주만에 8위로 치고 올라왔다. 또 천안함 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 상황에서도 대북인도적 지원을 호소와 함께 국제구호단체 JTS를 통해 밀가루를 지원해왔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 이후 정토회원들과 함께 조계사에서 24시간 49일 수행정진을 수행 중인 정토회 스님들과 함께 이끄는 등 환경 인문 포교 활동을 펼쳤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적 수행

을 강조하는 전문 수행기관인 수행공동체 정토수련원도 20년 만에 대웅전을 준공했다. 수련장도 확장 단장했다. 정토수련원은 율막과 비닐 천막, 조립식 건물을 전전하던 수련원은 청년대학생 여름수련회를 시작으로 학생과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4박5일, 7박8일, 9박10일, 100일 수련 일정으로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일체의 장, 100일 출가의 장 등의 수련과정을 1000여회가 가졌다.

현지사 소개 그 열한번째 주제 - 다보탑 -

대적광전에 이은 또 하나의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사실

그 날 나와 다보불은 현지사 다보탑 속에서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해서 앉아 있을 것이다 - 석가모니불세존말씀 -

[그 때 부처님 앞에 칠보탑이 나타나니 높이가 이만리요, 가로세로가 각 만리 씩인데 땅에서 솟아나와 궁중에 머물렀다. - (법보연화경) <견보탑품> -

현지사에 솟아난 빛의 묘담
2008년 음력 10월 15일, 현지사 대적광전 개원식 마당에 빛으로 된 묘담이 땅을 찢고 솟아났다. 그날 자리를 참석한 어떤 이는 땅위에서 끈끈이 하를 뜯어내 휘둘러 치는 소용돌이를 보았고 어떤 이는 땅에서 소용돌이 치며 솟아나는 금빛 휘황찬란한 거대 묘담의 형체를 보았다. 이 탑의 정체는 다음 불교 최상의 경전인 보법연화경에서 소개되는 탑종의 탑, 다보탑이었다.

[그 보배탑 속에는 여래의 전신이 계시느니라. 지난 세상에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가 세계가 있었으니 보정이라 이름이었으며,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어 이름을 다보라 하시었느니라. ...저 보배탑이 만드신 그 앞에 솟아나오고... - (법보연화경) <견보탑품> -

대적광전의 가치와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출현
그 자리에 다보불탑이 솟아난 이유는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 개원식이 있었기에 그 우주적 보물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곳 현지사가 온전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법의 붓다화상시기에 영산불교 사상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빛의 묘담을 재현하다.
현지사에서는 빛의 묘담이 솟아난 그 자리에 유무를 초월한 절대계의 탑을 실제 크기보다 축소하여 재현하였다. 그리고 가설과 아난이 다시 몸을 받아와 이번 생애 불교를 이룬 광명만덕·자재만현 두 분 큰스님에 의해 점안되었다. 따라서 이 탑은 보정정도의 실제 다보탑과 링크되어 있으며 다보부처님께서 이곳에 상주하신다.

법화경 다보불탑! 현지사 대적광전 앞에 빛으로 솟아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바세계 삼천대천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되고 갈라지며 그 가운데서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들이 인격변에 솟아나왔다. - (법화경) <중지유출품> -

다보탑의 위신력
다보부처님과 천만억 본화보살님들 한분 한분의 능력은 실로 무한하여 그 모든 보살들의 능력이면 중생의 그 어떤 소원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앞으로 이 다보탑은 인류 문화사에 길이 남을 우주적 보탑으로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불자들의 무량 복선이 될 것이다.

인류 초유의 성지
다보탑 조성으로 인해 현지사는 다보부처님과 천만억 본화보살님들께서 실제 현신하시어 우주적 위신력을 발휘하는 역사상 초유이자 세계 유일의 성지가 된다. 상행보살님과 정행보살님은, 이번 생애 몸을 받아 불교를 중한 산해제자계통왕불 아난존자의 좌우보처이자 본화보살의 영도자로서 이곳 현지사는 향후 1만년 말법시대 본화보살들의 활동 중심이 된다. 현지사의 다보탑은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도모하는 원대한 원력을 담아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수많은 성현들을 배출하는 인류의 기념비적 존재가 될 것이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

그 누가 이러한 천도재를 올릴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증유한 천도대제 봉행!!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제는, 부부 각각의 친·외가족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윗대 무주고혼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주소를 파악,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 더 맑을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또한 조상 영가님들을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천도해 드립니다. 네 번이면 무주고혼과 지옥의 영가들을 하는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제입니다.